

## 언론사 경제부장단 만찬

반갑습니다. 대통령이 하도 투명해서 생각을 뻗히 알고 계시겠지만 청와대 초청에 빠지지 않고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덜렁 제 생각만 가지고 부탁한다고 그게 잘 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조언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도 가끔 물어보고 더러 대답도 하고 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인식이 합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는 토대가 되고 서로 협력해 보자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의 대통령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전에 질문하고, 대본이나 시나리오 없이 마구 말하고 부닥쳐서 즉석에서 말하고 즉답하고 이런 일은 새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던 나쁘던 새로운 것을 하고나면 당장 남는 것이 없습니다. 민노동과 만났는데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몇 가지 좋지 않은 얘기도 나오고, 만나서 뒤에서 전달하는 서로 과정에서 손해가 보는 일이 있더라도 사회적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을 안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노당도 만나고 나가서 당 쪽의 입장이 있어 선택해서 말하고, 여러분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이 직업이고 그런 것 가운데 문제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이 보편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본분이 그것이니 문제가 지적되고 비판도 받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대화를 통해 협력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도 좋고 질문도 좋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시다.

처음 10분간 정책기획실장이 브리핑을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선수들에게 따분하고 답답할 것 같아 바꿨습니다. 다 알만한 분들인데 브리핑하면 어색할 것 같아 없었습니다. 저는 위기 문제에 관해 인식 차에 관해서는 논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논쟁해도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다만 직접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긍정적 것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기도 하지만 희망적인 것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긍정적 것을 끌어내고 싶었구나, 그렇게 메시지 전하고 싶었구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위기의 개념규정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혹시 준비했더라도 이것만 양보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경제 지표를 가지고 말하는데 지표와 관계없이 영세상인과 서민이 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장관들에게 지표를 달라고 해서 분석하고 점검도 해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새로 규명하고 새롭게 봐야합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소비 투자인데 금방 안 풀리는 게 규제완화입니다. 그래서 고심입니다. 노사관계도 뾰족한 방법 좀 있으면 오늘 저에게 선물해 주십시오. 또 소비 진작 방법도 있으면 주고가십시오. 옛날에는 수출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고 소비도 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수출이 잘되어도 내수로 연결이 안 됩니다. 경제를 새로 규명하고 새롭게 봐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문제도 제일 걸림돌인데 해소방법들이 가장 궁금합니다. 묘안이 없어서 항상 묻습니다. 각료들에게 하는 단골질문인데 각료들도 이 질문에 힘듭니다. 열심히 해답을 찾아왔는데 대통령은 이 답이 아닌 것 같다고 왜 효험이 없느냐고 하면 각료들이 어려워합니다. 부탁말씀은 마무리 말씀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